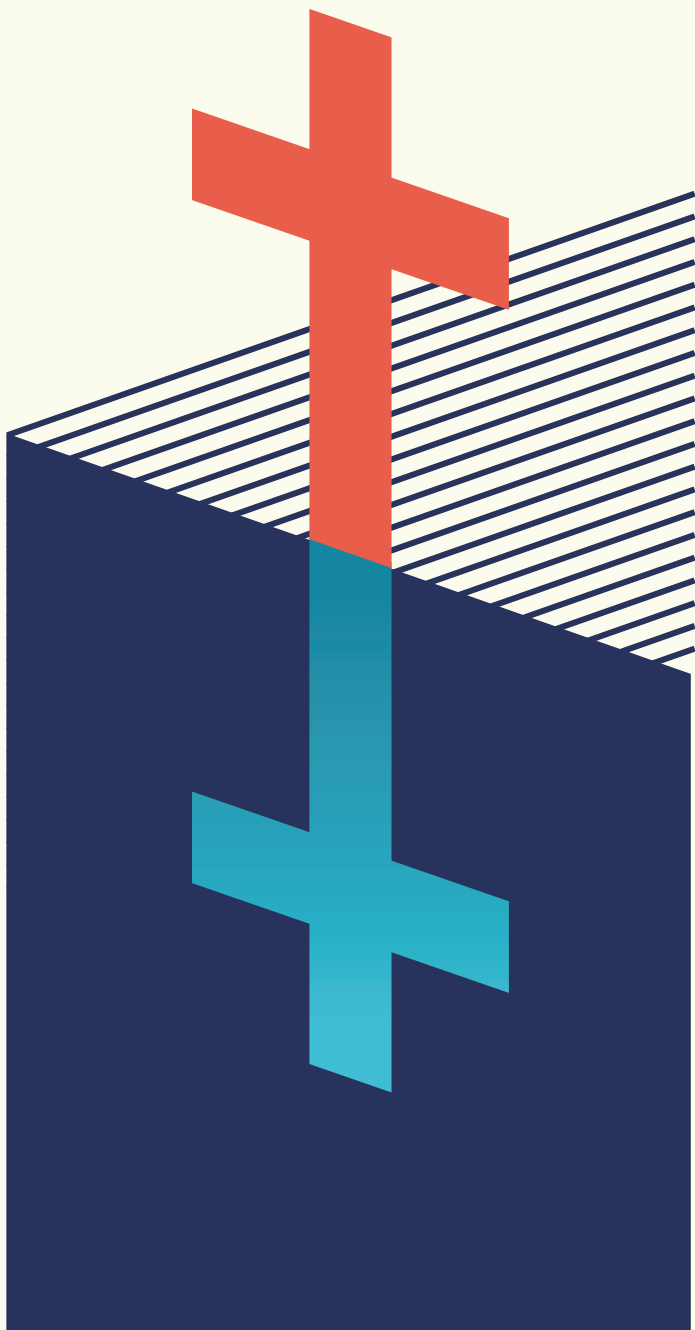


2024년
1월 7일

로마서 강해
갈릴리 공과



셀원들을 환영 - 얼음깨기(Ice-breaking)

1. 신년 특별새벽기도회에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요?
2. 올 한 해, 내가 꼭 만들고 싶은 좋은 습관이 있다면?

| 찬양 -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 대표기도

죄의 종, 의의 종 (롬 6:15-23)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있다고 진단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 불행히도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내재된 선한 것입니다. 율법대로 살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전적 부패, 전적 무능한 존재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 자체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새로운 한 법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고 인간을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법이 오늘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의가 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너는 의롭게 되었다고 선언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현실 속에서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의롭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너희의 죄는 내가 다 짊어졌다고, 너희는 이제 죄가 없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의의 종으로 신분을 변동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의 타락하기 이전처럼 사람을 대면하길 원하셨습니다. 사람들과 하나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여기엔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한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인간의 죄가 씻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인간을 의롭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가 왕노릇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 우리의 죄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때 살아난 나는 옛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입니다. 죄에 지배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신자는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 법 아래 있는 존재 → 은혜 아래 있는 존재

로마서 6:14-15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1-2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당시 몇몇 신자들이 오해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라면,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할 때 모든 것이 용서받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어차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뜻의 헬라어 <메 게 노이트>는 가장 강력한 부정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의롭게 된 자는 결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마침내 나는 망각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난 주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받은 은혜가 너무 큼니다. (1)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안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신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얻은 우주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2)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됩니다. 죄와 실수는 다릅니다. 실수는 인간과의 관계이지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3)회개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존재를 철저히 전복시키고 새롭게 재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은혜가 이렇게도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행위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이르고자 하였습니다. 항상 <내 힘으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총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의의 기반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때로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내 의의 근거가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배하던 마귀의 절대적 지배력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되는 신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총을 누리며 살아야 할 생명적 존재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경기가 나빠지자 사업을 정리합니다. 인간의 영혼을 미혹하고 타락시키는데 사용했던 연장과 도구들을 경매에 붙입니다. 고집, 교만, 혈기, 음행, 외식 등 인간의 영혼을 미혹하는 데 사용했던 온갖 도구들이었습니다. 구경꾼 하나가 구석에 진열된 은색 뺨기 모양의 도구를 선택하며 용도를 묻습니다. 사탄은 <낙심>이라는 도구라고 대답하며 사용 방법을 설명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섬기다가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고민할 때 그들의 마음 속에 실망이라는 뺨기를 깊이 박아버리죠! 그러면 마음 속 깊이 틈이 벌어지며 그 속으로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침투하죠! 결국 그 사람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 옆에 있던 다른 구경꾼이 <낙심> 도구로도 넘어지지 않은 기독교인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있긴 하지만 극소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깊이 생각하면서 가슴 속에 감사를 품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낙심의 뺨기를 아무리 깊이 박아도 그들의 신앙은 오히려 더욱 더 깊어만 가죠.>

감사와 은혜를 품고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다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귀가 감히 대항하지 못합니다.

점검 질문

1. 은혜 아래 있는 삶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2.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2. 죄의 종 → 의의 종

로마서 6:16-18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신학자 부르그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Who I am)'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Whose I am)'라는 질문이다. 내가 선택한 것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죄는 처음 손님처럼 겸손하게 다가와서 마침내 주인 행세를 한다." 어제까지 우리의 주인은 죄였습니다. 죄가 왕노릇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종"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 글이 쓰여질 당시 로마제국 인구의 1/3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당시 노예는 사고 팔 수 있는 인간에 가까운 동물 또는 물질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노예가 팔리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주인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옛 주인에게 종속되지 않고 새 주인에게 종속됩니다. 둘째, 삶이 달라집니다. 주인이 농사 짓는 사람이면 종도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주인이 고기 잡는 사람이라면 종도 역시 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주인만이 존재합니다. 사탄과 그리스도입니다. 종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주인은 사탄이었습니다. 죄에 종노릇했습니다. 죄에게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노예 경매 현장을 지나게 됩니다. 경매 중인 젊은 흑인 여인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링컨은 흑인 노예를 위한 경매에 입찰합니다. 최고 액수를 제시하여 낙찰 받습니다. 여인은 분노와 절망에 찬 어조로 링컨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날 가져서 무엇을 하려고 하죠?" 링컨이 말합니다. "당신을 자유롭게 해 주겠소!" 링컨과 여인과의 대화는 계속됩니다. "무슨 대가로 그러시죠?" "아무런 대가도 없소!" "그렇다면 제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다는 말입니까?" "네.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겠습니다" 그 순간, 증오와 멸시와 고통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눈에 따뜻한 웃음과 감격의 눈물이 번집니다. 그녀는 링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당신이 가는 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좋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는 사람을 종이 되게 만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죄의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억지로 할 뿐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에는 분노와 절망 뿐입니다. 그러나 의의 종은 자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가득합니다. 자유가 있기에 주인을 억지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 자유로 주인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섬깁니다. 결국 자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인의 자발적인 종이 되게 합니다. 항상 거기에는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1.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에게 접속된 자가 누리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3. 죄인의 열매 (사망) vs 의인의 열매 (거룩, 영생)

로마서 6:19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로마서 6:12-13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새창조된 존재입니다. 신의 죽음과 맞바꾼 존재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신적이고 우주적인 존재가! 그렇게 광대무변의 신이 내재된 그런 존재가 썩을 것을 위해, 허무한 것을 위해 쓰임 받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의 죽음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사용되길 소원합니다. 이왕이면 사람들을 치료하고,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일에 쓰임 받길 소원합니다. 이왕이면 교회에서 교사하고, 전도하고, 섬기는 일에! 의의 사역에 쓰임 받길 소원합니다. 교회에 참석하는 것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셀 예배를 통하여 삶을 나누는 것도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외우는 것도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입니다. 아픈 성도님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것도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입니다.

내가 어디에 순종하는가에 따라 주어지는 대가(보상)도 다릅니다. 죄의 종은 불의의 병기로 사단에게 순종합니다. 사단을 위해 일한 대가(보상)는 무엇일까요? 의의 종은 의의 병기로 주님께 순종합니다. 주님께 순종한 대가(보상)는 무엇일까요? 죄의 종은 순종의 대가로 죽음을 받습니다. 의의 종은 순종의 대가로 영생과 거룩을 보상 받습니다.

로마서 6:23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갈라디아서 5:22-23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접속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풍성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생명이 가득합니다. 지혜가 가득합니다. 치유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접속되면 그리스도에게 풍성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되었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2024년 <내 안에 거하라>라는 주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꼭 붙잡고 살자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며 영원한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니다. 2024년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예수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점검 질문

1. 의의 종이 된 자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되나요?
2.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적용 질문

1. 신앙 생활하며 언제 낙심이 찾아왔나요?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였나요?
2. 어떤 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싶으신가요?

| 공동체 기도

1. 각 부서 수련회에 성령님 기름부으셔서 은혜 충만하게 하소서.
2.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기도는 사라지지 않음을 믿으며
더욱 기도하게 하소서.
3. 1-2월 말씀을 읽고 암송하여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seraphim



1. 세 상 의 유 혹 시 험 이 - 내 게 몰 려 올 때 에 - 나
2. 거 짓 과 속 임 수 로 - - 가 득 찬 세 상 에서 - 어
3. 주 위 를 둘 러 보 면 - - 아 - 무 도 없 는 듯 - 믿



의 힘으론 그 것들 - 모두 이길 수 없네 - 거 대 한 폭풍 가 운 데 - 위 축
디로 갈 지 몰라 - - 머뭇 거 리 고 있네 - 공 중 의 권 세 잡 은 자 - 지 금
음의 눈을 들면 - - 보 이 는 분 계 시 네 - 지 금 도 내 안 에서 - - 역 사



된 나의 영 혼 - 어 찌 할 바 를 몰 라 - - 해 매 이 고 있 을 때 -
도 우리 들 을 - 실 패 와 절 망 으 로 - - 넘 어 프 리 려 하 네 - 주 를
하 고 계 시 는 - 사 망 과 어둠 의 권 세 - 물 리 치 신 예 수 님 -



찬 양 손 을 들 고 찬 - 양 전 쟁 은 나 에 게 속 - 한 것 아 니 니 - 주 를



찬 양 손 을 들 고 찬 - 양 전 쟁 은 하 나 님 께 - 속 한 - 것 이 니

< 모든 갈릴리 그리스도 공동체는 >

1. 주님 사랑합니다

2.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믿음, 소망, 사랑)

3. 감사하게 하소서

4. 지혜롭게 하소서

5.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NOTE.

NOTE.

